

김정일, 양저우서 장쩌민 만난 듯

한장개발구 태양광업체 방문... 다음 행선지 상하이 관측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방중 나흘째인 23일 오전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 시내 한장개발구를 방문해 IT 업체를 찾았다.

김정일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각 오전 10시)께 숙소인 영빈관을 출발해 한장개발구를 찾았다가 다시 숙소로 돌아왔다.

김정일 위원장이 방문한 업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지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이날 양저우 시내의 화양 태양광업체를 방문할 것으로 점치고 있으며 한 시간 거리인 우시(武錫) 소재 세계 제1의 태양광업체인 선택을 방문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이어 오후에는 선친인 고(故) 김일성 주석의 유적지를

답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저우는 지난 1991년 10월 난징(南京)에서 김일성 주석과 장쩌민(江澤民) 당시 주석간에 정상회담 후 김 주석이 장 전 주석의 안내로 방문하고서, 북한측 주요 인사들이 많이 찾은 명소가 됐다. 양저우는 장쩌민의 고향이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은 부친이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진 중국 명나라 때 충신인 사가법(史可法) 기념관을 방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김정일 위원장은 22일 오후 8시 즈음에 양저우 역에 도착해 곧바로 양저우 영빈관으로 향해 여장을 풀었다. 이번 중국 방문 기간에 처음으로 열차가 아닌 숙소에서 밤을 보냈다.

현재로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장쩌민 전 국가주석과 회동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적어도 양저우 방문 기간에는 회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2000년, 2001년, 2004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현재의 장쩌민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고,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시절인 2006년 1월 10~18일 중국에 왔을 때는 1월 12, 13일 이들 동안 광저우(廣州)에서 별도로 만날 정도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이날 오전 영빈관에서 장쩌민 전 주석과 함께 조찬을 했거나 양저우 시내 김일성 전 주석 유적지에 두 전현직이 동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양저우 시내 장쩌민 전 주석의 생가를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김정일 위원장이 타고 온 특별열차가 양저우 역 플랫폼에서 사라져, 이날 중에 김 위원장이 다음 행선지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양저우 방문 후 다음 행선지로 상하이(上海)를 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상하이에 가면 북한 나름의 개혁개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북한식 남순강화(南巡講話)를 선언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내 첫 해적 재판 심호주열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국내 첫 재판이 23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시작했다. 석해군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마호메드 아라이 등 해적 4명은 앞으로 5일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재판을 받은 뒤 27일 오후 5시30분께 선고받게 된다. 이번 재판에는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를 비롯 국내외 50여개 언론매체가 특파원 등을 파견해 치열한 취재경쟁을 벌였다. /연합뉴스

선관위, 예비금 수익 간부 선물 구입

광주선관위 등 11개 위원회 선거 경비 부적정 사용

감사원 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대책 경비 등에 사용해야 할 예비금 수익을 간부 선물구입비와 전별금에 집금으로 주는 등 2008년부터 작년 11월까지는 예산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광주 선관위 등 11개 각급 위원회 지방선거관리 경비를 증액하는 등 집행계획 수립을 부적정하게 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중앙선관위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각종 선거대책 경비, 국회 등 대외기관 활동비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예비금 2억8000만 원을 지난 2008년부터 작년 11월까지 직원·간부 선물구입비, 전별금·제작기념품 제작, 직원체육행사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

사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선거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명목으로 위원장에게 연간 165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등 2008년부터 작년 11월까지 매년 각 연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특정업무경비 5억여원을 대 국회·대외기관 활동비,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개인과 각 부서에 지급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리 예비비도 부적절한 곳에 쓰이긴 마찬가지였다.

중앙선관위 총무과는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수리비로 예비비 70만원을 사용했고, 안산시 상록구선관위는 청사 창문 단열필름 시공비로 1100만원 썼다. 이를 포함해 중앙선관위 6개 실·국과 11개 지방선관위에서 예비비 5300여만원을 직원 관사 커튼 설치비(강릉시), 직원 회식비(선거연수원), 위원·직원 문화탐방 여비(광창

군) 등에 사용해 감사원의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또 중앙선관위가 상임위원 등 38명에게 79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1억8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수령자의 서명만 받고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등 업무추진비가 불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광주선관위 등 15개 위원회에서 2010년도 일반 세출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2억2000만원을 지방선거관리경비로 집행해 이를 각 시도와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됐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 국유재산 관리·처분 등을 담당하는 직원 2명이 마포구선관위 청사 신축부지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적발, 징계를 요구했다.

한·미 공군, 서부지역서 대규모 전투훈련

박종현 공참총장 1전비 방문

한국과 미국 공군은 23~27일 한반도 서부 공역에서 연합 편대군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종합전투훈련(일명 맥스선더 훈련)을 실시한

다고 공군이 23일 밝혔다.

올해 실시하는 한·미 연합 공군 훈련 중 최대 규모인 이번 훈련에는 한국측에서 F-15K, KF-16, F-4E, F-4E/F 전투기와 C-130, CN-235 수송기, HH-60P 헬기 등 38대, 미국측

에서 F-16 전투기, A-10 공격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등 21대가 각각 참가한다. 한·미 조종사들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 1전비행단으로 전개해 21~22일 양일간 전술토의와 임무계획 수립을 마쳤다. 박종현 공군참모총장은 23일 1전비행단을 방문해 훈련계획을 점검하고 한·미 조종사들을 격려했다. /연합뉴스

“라산·황금평 경제무역지대 첨단기술 등 산업벨트 조성”

북·중 협정 체결후 후속작업 돌입

북한과 중국은 라산·황금평을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는 거점 산업벨트로 조성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강성대국 선구지역’으로 건설하겠다는 목표로 라산에는 원자재, 첨단기술 등 6대 산업, 황금평에는 정보, 관광문화 등 4대 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세부계획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이달 말로 예상되는 황금평 개발 착공식을 계기로 북중 경협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23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은 ‘라산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위한 후속작업에 돌입했다.

이 소식통이 입수한 ‘조중 라산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약’에는 두 지역을 조선 대외교류의 시험지역, 강성대국의 선구지역, 조중 경제협조의 시범지역으로 건설한다고 규정했다.

라산지대에는 기초시설, 공업단지,

물류망, 관광의 공동개발 및 건설을 중심으로 하고 원자재공업, 장비공업, 첨단기술공업, 경공업, 서비스업 등 6대 산업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특히 라산-선봉-웅상-굴포에 이르는 ‘연해(沿海) 북도식’ 산업대를 형성한다고 밝힌 일종의 산업벨트 조성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연변과 북한 라산·청진·칠보산·금강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사할린, 일본 니가타·삿포로, 남측의 속초·부산을 잇는 관광경제권을 형성한다는 계획도 잡혀 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계획도 담겨 있다. 라산지대에는 ‘1중추, 3방향, 5통로’의 개방식, 국제화된 대교통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라산·선봉, 웅상항을 중추로 하고 북으로는 중국, 러시아와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북한 청진과 접하며, 동으로는 북한 동해로 향해있는 조건에 맞게 중국 훈춘(琿春), 두먼(圖們), 러시아 하산, 북한 청진과 통하는 육상통로 및 해상통로를 구축한다고 돼 있다.



“고엽제 사건 계기 SOFA도 개정해야”

김학송 의원 주장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23일 미군 기지 ‘고엽제 매립’ 의혹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도 개정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고엽제 사건을 계기로 모든 미군기지에서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엽제는 인류역사상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로 주성분인 다이옥신은 치사량이 청산가리의 1만배에 이르는 맹독물질”이라며 “이런 무시무시한 독극물이 30년이 넘도록 그것도 무려 50톤이나 우리 땅에 매립돼 있었다니 가가 찰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고엽제 매립이 사실상 밝혀진다면 주변미군은 오염정화와 피해보상, 그리고 사과 등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 - 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백두산악

광주의 자존심 백두산악에서 선택의 폭이 넓은 등산의류, 장비, 오토 캠핑까지 **전품목을 할인**해 드립니다!!

구매 고객님께 **사은품**을 증정해드립니다

할인 행사점

백두산악 증심사점 T.236-1187

광주아울렛점 T.267-2562

서방사거리 밀레 T.266-8848